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2호> 2017년 5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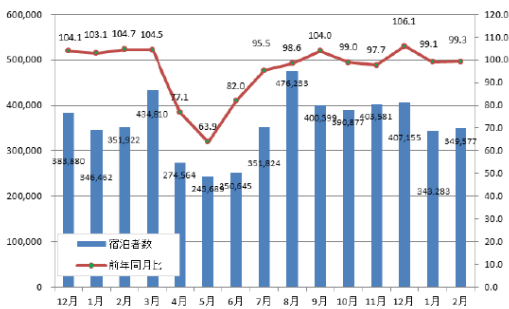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4월부터 ‘국민문화제 · 장애인예술문화제국(局)’과 ‘럭비월드컵2019추진실’이 신설되어 현에서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내년과 내후년을 향해 준비를 본격화하였습니다. 작년 관광통계에 따르면, 구마모토 지진으로 감소하고 있던 해외 관광객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해외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오이타의 매력을 발신해나가고자 합니다.

<구마모토 지진 발생 1년>

현내 숙박객 수 V자 회복 달성



▲ 숙박객 수 동향 (오이타현관광통계조사결과)

2016년 4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현내에서도 주택 및 도로 등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 중에서도 관광객 수는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숙박 할인 쿠폰 ‘규슈 부흥 할인’ 효과로 현내의 관광객 수는 V자 회복을 달성하였습니다. ‘규슈 부흥 할인’ 종료 후 다시 관광객 수가 감소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이타현을 응원하고 싶다’며 찾아 주시는 관광객 여러분의 마음과 현내 관광 관계자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든위크에도 많은 관광객 여러분이 찾아주셔서 지진 발생 전과 비교해도 숙박객수는 전 지역에서 증가 또는 유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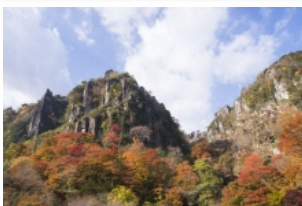
재해 발생 시 외국인 지원 강화



구마모토 지진 발생 후 과제로 남겨진 것이 외국인 대응입니다. 일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현내 거주 외국인 및 관광으로 오이타를 방문했을 때 재해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오이타현은 재해 대책 본부내에 ‘재해 시 다언어 정보 센터’와 ‘외국인 구원반’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5일, 국가와 시정촌, 기타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종합방재대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최대 진도 6강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재해 시 다언어 정보 센터’와 ‘외국인 구원반’을 담당하는 직원도 그 역할을 다하며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오이타현 소식>



‘야바케이 유람’ 일본 유산 선정

나카츠시와 구스정이가 공동으로 신청한 ‘야바케이 유람 ~대지에 그려진 산수화의 길을 걷다’가 일본 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본 유산이란 지역의 역사적 매력과 특색을 통해 일본의 문화와 전통을 전하는 스토리를 문화청이 인정한 후 등록되며, 2015년도 실시 이후, 현내에선 히타시의 칸기엔유적에 이은 두 번째 선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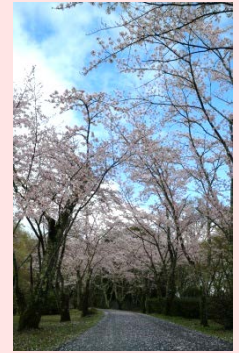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2호> 2017년 5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다케타 오카성터 벚꽃놀이



올해는 규슈의 벚꽃 개화가 예년보다 늦어지며, 오이타현의 경우 4월 4일에 개화 선언을 했습니다. 4월 개화 선언은 29년 만이었다고 하네요. 오래 기다려온 만큼 현대 벚꽃 명소에는 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다케타의 오카성터는 1500그루의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 벚꽃 명소로 오이타현에서 유일하게 ‘일본 벚꽃 명소 100선’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으로 유명하며,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기대감을 가득 안고 도착한 오카성터는 전날부터 내리고 있던 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고여있었으며, 벚꽃 잎들은 강한 바람과 함께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곳은 날씨와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벚꽃이 아쉬워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벚꽃나무와 이끼 낀 성벽이 조화를 이루며 멋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봄비를 가득 머금은 벚꽃 나무는 파릇파릇하고 싱그러워 비 오는 날에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운치와 시원한 공기가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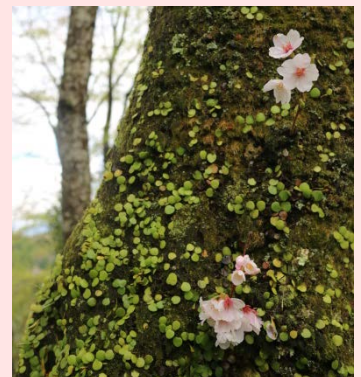
시간이 흐르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 멀리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있던 구주연산의 하늘이 점점 맑게 개고 있는게 보였습니다. 이윽고 오카성터의 날씨도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며, 순식간에 파란 하늘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회색빛이었던 벚꽃 배경이 파랗게 바뀌자 오카성터도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길다랗게 늘어선 벚꽃 터널의 모습은 이 곳이 벚꽃 명소로 선정된 이유를 알 수 있는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번덕스러운 날씨 덕분에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정반대의 분위기 속에서 벚꽃을 감상할수 있었습니다.

매년 4월 초, 오카성터에선 벚꽃 시즌을 맞이하여 벚꽃 마쓰리가 열립니다. 오카성터에서 성하마을까지 행진하는 다이묘행렬과 갑주무사의 행렬을 보며 벚꽃과 다양한 볼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오카성터는 규슈 올레 오쿠분고 코스 중 한 곳으로,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으로 올레길을 걷는 분들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들도 벚꽃과 단풍 시즌에 맞춰 오쿠분고 코스 올레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카성터 홈페이지의 라이브 영상을 통해 오카성터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https://www.city.taketa.oita.jp/okajou/>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2호> 2017년 5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분고오노시 튤립페스타



여기저기서 봄의 소식을 알리는 꽃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분고오노시 오가타정의 하라지리 폭포 주변에서도 매년 4월 초에서 중순에 걸쳐 ‘튤립페스타’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로 25회 째를 맞이한 ‘분고오노시 튤립페스타 2017’은 넓은 무논을 가득 메운 100종류 40만 송이의 튤립을 감상할 수 있는 분고오노시의 대표적인 봄 이벤트입니다. 이곳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의 주최로 주민들이 직접 하나하나 튤립을 심으며 이벤트 준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눈 앞에 펼쳐진 형형색색의 튤립꽃밭을 보고있자니 오가타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애착이 느껴졌습니다.

올해는 벚꽃 개화와 함께 튤립도 늦게 피면서 이벤트가 시작되는 4월 초에는 튤립이 절반 정도밖에 피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점점 기온이 오르면서 이벤트 기간 후반부에는 다행히도 활짝 핀 튤립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 때마다 향긋한 튤립 향이 풍기면서 날씨는 흐렸지만 본격적인 봄이 왔음을 실감하였습니다. 화려한 색깔을 뽐내며 가지런히 피어있는 튤립을 보니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날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비가 내리고 있었던 터라, 하라지리 폭포의 수량도 빗물로 인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덕분에 박력넘치는 폭포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근처에 커다란 벚꽃나무가 있어서 만개한 벚꽃도 함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튤립과 그 너머로 보이는 폭포, 훔날리는 벚꽃까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절경이었습니다. 하라지리 폭포를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출렁다리를 건너자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샛노란 유채꽃밭이 제주도를 연상케할 정도였습니다. 튤립 이외에도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을 배경으로 관광객들도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튤립페스타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100종류의 튤립 중 한 송이 당 100엔을 지불하고 골라갈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지역 특산물 등 먹거리를 판매하는 부스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튤립 꽃밭을 조랑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승마 체험 및 주말에는 공연도 열린다고 합니다. 절경과 함께 완전한 봄 기운을 한껏 느낄 수 있던 튤립페스타였습니다.

<튤립페스타 2017>

일시 4월 1일~14일

장소 하라지리 폭포 주변

